

제1장 언 어

1. 충청 지역 언어의 역사적 배경

오늘날의 보령 지역 언어의 특성을 음성 언어학적으로 기술하기에 앞서 우리 지역을 포함하는 충청도 일대의 말의 뿌리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결국 보령 지역의 말은 충청도 방언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보령 말의 역사를 알려면 충청도 말의 역사적 배경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1) 충청도 말은 마한 말에 뿌리를 두었다.

삼국 시대 이전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쓰이던 말은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의 세 가지 방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한이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 오늘날의 호서와 호남이었으므로 충청도 말은 전라도 말과 함께 마한 말에서 비롯되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한 이후 이천여 년에 걸쳐서 이 지역에서는 정치 사회적인 변혁이 수없이 일어났고, 이러한 변혁은 충청 지역의 언어에도 직접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2) 마한 말은 백제의 언어로 계승되었다.

마한에 이어 백제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도 마한의 언어 뿌리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배층이 부여족(夫餘族)이었으므로 북방계 언어가 어느 정도 섞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역시 그 바탕은 마한 말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마한 말은 백제의 언어로서 수백 년간 발달하여 오면서 고유의 언어권(言語圈)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언어도 고립되어 독자적으로만 발달하는 일은 없다. 주변의 다른 언어와 항상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건 적건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충청도 말은 경기도 말에 더욱 가깝다.

충청도 말은 흔히 경기도 말과 친족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현대어를 비교하면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충청도 말이 옛날 마한의 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을 상기(想起)할 때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전라도 말과 근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삼국시대를 거치는 동안 충청도가 고구려와 신라 두 나라와 접경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고구려 말과 신라 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로 오늘날과 같이 전라도 말보다는 경기도 말의 일반적인 특성을 더 많이 지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충청방언권 안에서의 보령 말의 위치

위에서 충청도의 말을 독자적인 방언권(方言圈)으로 설정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충청도 방언이 모두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충청도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방언적인 특성이 달리 나타난다.

1) 충남 지역의 삼대 방언권

대체로 충청도 말은 지역적인 언어 특성에 따라서 3개의 방언권으로 나뉜다.

즉 서해안을 끼고 있는 서북권과 서남권, 그리고 주로 내륙에 위치한 동북권으로 구획하여 볼 수 있다.

서북권에는 태안군·서산시·당진군·홍성군·예산군이 속하고, 동북권에는 아산시와 천안시가 속하며, 서남권에는 서천군·보령시·청양군·부여군·공주시·논산시·계룡시·연기군·금산군 등이 속한다. 대전도 서남방언권에 속한다.

2) 보령의 말은 충청의 서남 방언권에 속한다.

위에서 말한 삼대 방언권 중에서 보령 지역이 속한 서남권이 충청도의 방언권에서 가장 방대한 방언권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권은 경기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어서 이른바 서울 경기 지역의 표준말에 가장 가깝다. 서북권과 서남권은 공통점을 많이 지니고 있으나 서북권에 비하여 서남권은 전라도 방언의 영향을 좀 더 진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령을 포함한 충청도의 서남 방언은 전라도 방언의 특성을 상당량 지닌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전라도 지역에 가까운 서천 등지의 말은 더욱 그러하다.

3. 보령지역 언어의 음성학 및 언어학적 특성

보령 지역의 말은 음성·언어학적으로 표준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발음, 리듬 및 억양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며 그 밖에도 낱말의 형태와 문장 구성 등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이제 그 대표적인 특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말의 축약(縮約)이 심하다.

보령 지역의 말은 표준말에 비하여 말의 축약이 심하다. 즉 가능하면 짧게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다음의 낱말이나 구절에서 음절이 하나씩 줄어들 수 있다

-표준말-	-보령말-	-표준말-	-보령말-
가까운데	가칸디	해야 하나까	허야니께
모르니까	모릉께	갖고 와야지	각파야지
해수욕장	해속장	주저앉아 가지고서	주잔저 가지구서
뭐라고 하는데	뭐라근디아		

2) 홀소리 <외>가 단순모음(單純母音)으로 난다.

보령 말은 입술을 둥글게 하고 내는 전설반개(前舌半開) 원순모음(圓脣母音) /외/를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 즉, 독일어나 프랑스어 또는 전라도 말에서와 같이 전설원순모음(前舌圓脣母音) [ø]가 단순모음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서울 표준말에서 /외/가 보통 이중모음(二重母音) [we](웨)로 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맞춤법-	-표준말-	-보령 말-	-맞춤법-	-표준말-	-보령 말-
외갓집	웨갓집	외갓집	쇠고기	웨고기	쇠고기
되미	웨미	되미			

또한 홀소리 <외>는 때때로 사람에 따라서 [오이]로 나는 경우도 있다. 가랑 /외갓집/과 /외연도/는 [오이갓집]과 [오이안도]로 발음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3) <요> → <유>

표준말의 /요/가 보령 말에서는 모두 /유/로 난다. 이는 특히 동사의 활용어미(活用語尾)나 명사에 붙는 토씨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며 보령을 비롯한 충청도 말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안녕하셨어요? → 안녕하셨어유?(또는 안녕하셨시유?) 그런데요? → 그런디유?

4) 단순모음 [어] → 이중모음 [워]

표준말의 /어/ 모음은 보령 말에서 흔히 /워/로 난다. 즉 단순모음 /어/ 앞에 [w]가 첨가되어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 역시 충청도 말의 대표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언제 가니? → 원제 가니? 어디서 오시오? → 워디서 오시우?

5) 낱말의 높낮이가 특이하다.

보령 말은 표준말에 비해서 낱말의 초두(初頭)가 훨씬 높은 목소리로 발음되는 특징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표준말의 낱말이 보통의 목소리 높이로 발음되는 데 비하여 보령 말은 이보다 훨씬 높은 목소리로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해수욕장]이란 말을 발음할 때의 높낮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말-	-보령 말-
- -	- -
- -	- -
- -	- -
해 수 욕 장	해 수 욕 장

이 같은 현상은 이 밖에도 많은 낱말에서 나타나며 낱말이 모여서 문장을 이룰 때에도 드러난다.

6) 말끝의 억양이 완만하고 느리게 흐른다.

충청도 말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나, 보령 지역 사람들은 문장을 끝맺을 때에 대단히 느리고 여유 있는 억양을 쓰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말꼬리의 가락이 길게 늘어지는 것이다. 이는 마치 북경 중국어의 제3성(第三聲)이 급하지 않고 여유 있게 흐르는 것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표준말의 <그렇지요>와 보령 말의 <그렇지유>를 발음할 때에 쓰이는 억양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말-	- 보령 말-
- - -	- -
-	-
그 령 지 요	그 령 지 유

위에서 보령 말의 말꼬리 <유>가 표준말의 <요>에 비해서 얼마나 길고 여유 있게 흐르는가를 알 수 있다. 보령 사람들 말에서 느껴지는 구수한 인정미는 바로 이러한 억양의 곡선에서 드러나지 않나 싶다.

7) 홀소리 <에> → <이>

표준말의 홀소리 <에>는 보령 말에서 <이>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발음할 때에 혀의 위치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 몇 가지 보기를 들어본다.

-표준말-	-보령 말-	-표준말-	-보령 말-		
군청에서	→	군청이서	저녁에 오세요	→	저녁이 오시유
하는데	→	허는디	안 계시구나	→	안 기시구나
그랬어요	→	그랬이유			

8) 홀소리 <아> → <어>

보령 말에서는 <아>가 <어>로 발음되는 일이 흔하다. 이는 특히 동사의 어미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야>는 <여>로 나는 것이 보통이다.

-표준말-	-보령 말-	-표준말-	-보령 말-		
하는데	→	허는디	그렇지 않아요	→	그렇지 않어유
먹지 않아	→	먹잔어	갈 것 아냐	→	갈 것 아녀

9) 홀소리 <어> → <으>

홀소리 <어>가 보령 말에서는 때때로 <으>로 나는 일이 많다.

-표준말-		-보령 말-		-표준말-		-보령 말-
먹어야지	→	먹으야지		꼭 잡아야 해	→	꼭 잡으야 혀
가주어야 하지	→	가주으야지		물 받아야지	→	물 받으야지

10) 홀소리 <오> → <우>

표준말의 홀소리 <오>를 보령 말에서는 흔히 <우>로 내는 일이 많다. 이 역시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가 입천장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준말-		-보령 말-		-표준말-		-보령 말-
잘 몰라	→	잘 몰러		못 오게 해	→	못 오게 혀
사고 나면	→	사구 나면				

11) 단순모음 <애> → 단순모음 <여>

표준말의 이중모음 <여>가 보령 말에서는 흔히 단순모음 <어>로 나는 일이 있다.

-표준말-		-보령 말-		-표준말-		-보령 말-
그래	→	그러		잘 못해서	→	잘 못혀서
해 봐	→	혀 봐				

12) 이중모음 <여> → <어>

표준말의 이중모음 <여>가 보령 말에서는 흔히 단순모음 <어>로 나는 일이 있다.

-표준말-		-보령 말-		-표준말-		-보령 말-
잘 하면	→	잘 혀면		이렇게 하면	→	이렇게 혀면
그러면	→	그러면				

13) 홀소리 <으> → <이>

표준말의 홀소리 <으>는 보령 말에서 때때로 <이>로 발음되는 일이 있다.

-표준말-		-보령 말-		-표준말-		-보령 말-
약으로	→	약이루		그 이튿날	→	기 이튿날
가느라고	→	가나라구		드릴게요	→	디릴게유

14) 홀소리 <오> → <으>

표준말의 홀소리 <오>는 보령 말에서 때때로 <으>로 발음되는 일이 있다.

-표준말-		-보령 말-		-표준말-		-보령 말-
밤새도록	→	밤새드럭		나보다 크다	→	나브담 크다
큰 놈으로	→	큰 놈으루				

15) 홀소리의 적극적인 조음

위에서 보령 말에서 나타나는 홀소리의 음성학적 특징을 항목별로 기술하였다.

그 밖에도 보령 말에서는 홀소리를 발음할 때에 혀나 입술의 움직임이 표준말에서 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뚜렷함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홀소리 <이>는 혀가 입천장으로 많이 올라간 채 발음되고 <오>나 <우>같은 원순음(圓脣音)은 입술의 둥글림이 표준말보다 훨씬 강렬하다. 따라서 보령 말의 발음은 소릿값이 대단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16) 구개음화(口蓋音化) 현상

보령 말에서는 표준말에서 나타나지 않는 구개음화 현상이 광범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표준말-		-보령말-		-표준말-		-보령말-
강이 깊어	→	강이 짚어		기다란 막대기	→	지드란 막대
어떻게	→	워치게		길이 질다.	→	질이 질다.

17) 무성자음(無聲子音)의 유성화(有聲化) 현상

표준말에서 <ㄷ> <ㅎ>이 합치면 무성음(無聲音) <ㅌ>로 실현되나 보령 말에서는 유성음(有聲音) <d>로 나는 것이 특징이다.

-표준말-		-보령 말-		-표준말-		-보령 말-
뿃 하러 [뿃타러]	→	뿃드러		웃해입으려고[오테입으려고]	→	오테입을라구
뿃 해 [모태]	→	무디혀				

18) 어휘적(語彙的) 특성

이상에서 소개한 음성학적 특징과는 별도로 보령 말에는 표준말과 대립되는 특이한 어휘(語彙)를 찾아볼 수 있다. 몇 가지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준말-		-보령말-		-표준말-		-보령 말-
똑바로	→	뻘똥이		수고했어	→	욕봤어
달라서	→	달버서		전화를 걸어	→	전화를 넣어

4. 보령 지역의 일반적인 방언

가 : 가시. 가생이.

가깝다 : 가깝다.

가늠하다 : 갈량하다.

가당찮다 : 가구없다. 가구짱없다.

가랑비 : 이스랭이. 이슬갱이.

가랑이 : 가리쟁이.

가렵다 : 개렵다. 가리다.

가슴 : 가십.

가시 : 까시(가시나무 : 까시나무)

가위 : 가새.

가위다리표 : 가새표.

가위바위보 : 장깨미. 장괘.

가자미 : 가재미.

가장귀 : 가쟁이. 마들가리.

가진 사람들 : 있어 사는 사람들.

간장 : 지랑. 지렁.

갈고리 : 갈구리. 갈쿠리.

갈비나무 : 솔꼬루.

갈치자반 : 젓갈치.

갈퀴 : 갈쿠.

갓난아이 : 깐난쟁이.

갓던가 : 갓었남. 갓간. 갓었간.

갓었던가 : 갓었었남. 갓었었간. 갓었었간디.

개 : 가이.

개구리 : 깨구리. 깨구락지.

개다 : 벗어지다(날씨).

괘기 : 괘구.

거든 : 걸랑. 걸랑은(하거든—하걸랑).

거뜰히 : 거쩍히.

거머리 : 그머리. 금자리.

거미 : 그미.

거세미 : 그시미.

거스름돈 : 거슬름돈.

거시(擧示) : 거시기. 거시키.

거울 : 섹경. 밍경.

거위 : 때꼬.

거위침¹⁾ : 거시침.

거의 : 거이. 거진. 거짐. 건짐.

1) 거위침 : 가슴 속이 느긋거리면서 목구멍에서 나오는 군침.

거지 : 그지. 으덩박시.

거품 : 버큼.

거피 : 기피.

건너다 : 근느다.

건넌방 : 옷방. 읍방.

건더기 : 건데기. 건지.

건드리다. 근데리다.

걸신들다 : 허걸들다.

검다 : 꺾다.

검불 : 검부래기. 검부럭지.

검사 : 금사.

검은엿 : 갯넛.

검정고무신 : 꺼떡고모신.

검정색 : 꺼떡색.

깁그래²⁾ : 깁그래.

겉보리 : 깃보리.

게 : 기(꽃게—꽃기). 그이.

~게끔 : ~게꾸니(~하게끔—하게꾸니).

겨 : 저(겉불—젓불)

겨를 : 저를.

겨릅대³⁾ : 저릅대. 저릅댕이.

겨우 : 제우.

겨우내 : 저우내.

겨울 : 저울. 저웁.

겨자 : 게자.

겉다 : 절다.

결판나다 : 절판나다.

결막염 : 개씨바리. 눈에피.

겉상 : 점상.

겉것 : 접것(겉저고리—접저구리).

경(經)쟁이 : 정쟁이.

겉두리⁴⁾ : 젓두리. 실참. 새참. 뗏것.

겉방살이 : 절방살이.

겉에 : 절에.

계 : 지.

계꾼 : 지꾼.

계시다 : 지시다(계십니까—지슈).

계집애 : 지지배(계집—지집).

겉돈 : 젓돈.

고갱이 : 고뻥이.

고구마 : 감자. 무감자. 사십일감자.

고기 : 고이기. 피기.

고깔 : 피깔.

고동 : 고둥.

고로롱 팔십 : 고로롱 팔십.

고로롱고로롱하다 : 고로롱고로롱하다.

고무신 : 고모신.

고비 : 고등(한고비—한고등).

고빼 : 고뻥이.

고생스럽다 : 고상스럽다.

고소하다 : 꼬습다.

고스레 : 고시래. 고수레.

고양이 : 고이. 팽이.

고욤나무 : 고염나무.

고은소금 : 가는소금. 재렴. 용렴.

2) 깁그래 : 술에 무엇을 찢 때, 찢는 것이 술 안의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받침으로 놓는 물건. 흔히 뗏조각을 엮어서 만드는데, 임시로 나뭇개비를 걸쳐 놓기도 한다.

3) 겨릅대 : 꺾질을 벗긴 삼대. 겨릅·마개·마골(麻骨).

4) 겉두리 : 농사꾼이나 일꾼들이 끼니 외에 찹찹이 먹는 음식.

고추 : 꼬추.
 고추장 : 꼬치장.
 고프다 : 구푸다.
 곱쟁이 : 꼭쟁이. 목쟁이.
 곱마단 : 말쉬바이. 말시바이.
 곱식 : 곡식.
 곤쟁이⁵⁾ : 자젓.
 골아떨어지다 : 고고르르하다.
 골파 : 줄파. 줄파. 실파.
 곱드러지다 : 고프러지다.
 곱사등이 : 폼새.
 곱간 : 곡간.
 공글리다⁶⁾ : 공굴리다.
 공연히 : 고연히. 공중.
 공휴일 : 쟁일(반공휴일—반쟁일).
 관술 : 광술(관술불—광술불).
 광주리 : 광우리.
 괜찮다 : 괜찮다. 갱깃찮다.
 핑장하다 : 경장하다. 조신하다.
 교군꾼 : 조군꾼.
 구더기 : 구데기. 고자리.
 구덩이 : 구텡이.
 구두쇠 : 주격쇠. 꼬뽀쟁이.
 구렁이 : 구렷이.
 구레나룻 : 구렛나루.

구린내 : 그른내.
 구멍 : 구녕.
 구석 : 구석배기. 구석쟁이. 구텡이.
 구유 : 구수.
 구중중하다 : 구지지하다. 구적구적하다.
 국물 : 멀국.
 군내 : 군동내.
 군다 : 술다(엷이 술다).
 굴껍질 : 굴빠캐.
 굴렁쇠 : 둥글패.
 귀 : 구이. 기.
 귀뚜라미 : 기뚜리. 기뚜래미.
 귀머거리 : 귀떡짜가리.
 귀살스럽다 : 기구살스럽다.
 귀신 : 수신.
 귀정나다⁷⁾ : 구정나다.
 귀찮다 : 구찮다.
 낫볼 : 기부랄.
 규모있다 : 주모있다.
 그 양반 : 그 냥반.
 그까짓 : 그깻(그까짓것 : 그깻것).
 그네 : 그니(그네뛰다 : 그니뛰다). 근디.
 그러게 : 그러매(그러게 말야 : 그러매 말여).
 그러니까 : 그러닝께. 그렇께.
 그러하고 : 그럭커구.
 그런 듯하다 : 그럴쌍시다.
 그런데 : 그런디. 근디.

5) 곤쟁이젓 : 곤쟁이로 만든 젓. 곤쟁이 : 곤쟁이
 과의 털곤쟁이, 까막곤쟁이, 민곤쟁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노하(瀾蝦)·자하(紫蝦).

6) 공글리다 : 바닥 따위를 단단하게 다지다. 일
 을 틀림없이 잘 마무리하다. 흩어져 있는 것을
 가지런히 하다.

7) 귀정나다 : 사물이 바르게 되어져서 끝이 나
 다.

그루터기 : 고주배기.
 그루팔⁸⁾ : 글팔.
 그릇 : 그릇.
 그리마 : 설랭이.
 그만큼 : 그만치. 그만침.
 그맘때⁹⁾ : 그만때.
 그바람에 : 그통구리에.
 그을음 : 꼬름.
 근방 : 근동.
 금방 : 고대(금방 갔다 : 고대 갔다).
 금줄치다 : 금줄따다.
 기다리다 : 지달리다.
 기둥 : 지둥.
 기름 : 지름.
 기름콩 : 나물콩.
 기름틀¹⁰⁾ : 지름챗날.
 기와 : 지와. 지야(기와집—지야집).
 기울다 : 지울다. 썩울다.
 기워입다 : 지여입다.
 기저귀 : 지저구. 지제기.
 길 : 질.
 길쌈 : 질쌈.
 길이 : 질이. 지력지. 지레기.
 김 : 짐.
 김매다 : 짐매다. 논(밭)매다.

8) 그루팔 : 그루같이 (한 해에 같은 땅에서 두 번 농사짓는 일. 또는 그렇게 지은 농사) 로 심은 팔.

9) 그맘때 : 그만큼 된 때.

10) 기름틀 : 참깨, 들깨, 콩 따위로 기름을 짜는 틀. 누유자기(油榨機).

김씨 : 짐씨.
 김장 : 짐장.
 김치 : 짐치.
 김다 : 짓다.
 까뀌 : 차구.
 까다롭다 : 피까드럽다.
 까닭 : 쪼간(웬까닭—웬쪼간)
 까락 : 꺼럭.
 까마귀 : 까그매.
 까마중이 : 가막사리.
 까무라치다 : 가물쓰다.
 까지 : 까장(나까지—나까장)
 깔보다 : 깐보다.
 감부기 : 감베기.
 깨 : 께(깨소금—께소금).
 깨끗이 : 께끗이.
 깨어나다 : 께송하다.
 께테기 : 께줄.
 꼬리 : 꼬랑지. 께지. 꼬랑뎡이.
 꼭닭다 : 도송하다.
 꼴 : 깔(꼴베다—깔비다).
 꼴뚜기 : 꼴떼기.
 꼴찌 : 께찌. 께등.
 팽과리 : 께매기.
 꾸러기 : 꾸레기.
 꾸러미 : 꾸레미.
 꿈지럭거리다 : 좃그리다.
 꿰지다¹¹⁾ : 꾸여지다(옷이 꾸여지다).

11) 꿰지다 : 내미는 힘을 받아 약한 부분이 미어 지거나 틀어막았던 데가 터지거나 하다. 속이 거나 숨기는 일이 드러나다. 일이 틀어지거나 그르쳐지다.

끄나풀 : 끈나풀. 끈나팔.

끄덩이 : 끄랭이.

끈 : 끄냉이.

끌다 : 끷다.

끌어다가 : 끷서다가

끌물 : 만물.

끼리 : 찌리.

끼어입다 : 찌입다(옷을 찌입다).

끼엌다 : 찌틀다.

끼워팔다 : 찌여팔다.

끼해야 : 찌해야.

나란히 : 쯤란히.

나막신 : 나무깨.

나무 : 낭구.

나무(를)하다 : 나무가다.

나무라다 : 지청구하다.

나물 : 너물.

나썰 : 나잇살.

나중 : 낭중. 야중. 양중. 훗번.

낙숫물 : 꾸지랑물.

날씨 : 날.

남 : 냄. 념(남이—냄이, 념이).

남(이)보기에 : 념보매.

남기다 : 냉기다.

남들이 : 념달이.

남편 : 냄편.

내던지다 : 내번지다.

내머려두다 : 냐두다.

내머려라 : 내썰라.

내머리다 : 내뜨리다.

내외간 : 내오간. 내우간.

내일 : 니열(내일 모레—니열 모리).

냉이 : 나송개.

너 : 니(네가—니가).

너의 : 녀. 느이(너희들—느이덜).

너하고 : 너랑.

넉가래¹²⁾ : 죽가래.

넉넉하다 : 너끈하다.

넉더리¹³⁾나다 : 넉덜미나다. 넉덜머리나
다.

넉 : 늘(넉뛰다—늘뛰다).

넉방석 : 밀방석. 밀랫방석.

넉빤지 : 넉판지.

넉기다 : 냉기다.

넉쩍다리 : 허벅지.

네 : 녀. 느이. 니(네 사람—니 사람).

넛 : 넛.

노간주나무 : 노가지나무.

놀 : 노을. 북새.

놀금¹⁴⁾ : 놓은금. 놓은값. 받을금.

놈 : 념(도둑놈—도둑념).

농개 : 황바리.

농사꾼 : 생일꾼.

농악놀이 : 풍장(치다).

누더기 : 누테기.

누룽지 : 누룽개.

누명쓰다 : 멍덕쓰다.

12) 넉가래 : 곡식이나 눈 따위를 한곳으로 밀어 모으는 데 쓰는 기구. 넓직한 나무판에 긴 자루를 달았다. 木杓(목궤).

13) 넉더리 ; 지긋지긋하게 몹시 싫은 생각.

14) 놀금 : 물건을 살 때에, 팔지 않으려면 그만 두라고 썩 낮게 부른 값.

눈 : 농깎. 농꾸녕.

눈두덩 : 눈탱이.

눈자위 : 눈жат.

눌은밥 : 누름밥.

뉘 : 니(쌀에 니가 섞이다).

느루먹다¹⁵⁾ : 부루먹다(양식을 부루먹다).

느리다 : 한없다.

느림보 : 둔바리.

늘 : 노다지(늘 그 음식—노다지 그 음식).

늘 : 장(늘 하는 말—장 하는 말).

능구렁이 : 능구리.

다니다 : 땡기다.

다다귀¹⁶⁾지다 : 다다구지다.

다람쥐 : 다람지.

다르다 : 달부다(달리—달버).

다르다 : 틀리다(달리—틀려).

다른 곳 : 헛군데. 헛간디.

다리미 : 대리미.

다만 : 다면.

다지다 : 제기다.

단내 : 눈내. 눌은내.

달갈 : 달갈.

달래 : 달리.

달음박질 : 띠엄박질.

달이다 : 대리다 (약을 대리다).

닭똥 : 달기똥.

닭털 : 달기털.

당기다 : 땡기다, 땡기다, 썩기다.

당목 : 서양목.

대가리 : 대갈, 대갈통, 대갈빼기.

대님 : 땡님.

대막대 : 다막대, 대막때기, 참때미.

대장간 : 승냥간.

대과 : 호과.

더덕더덕 : 더탱이더탱이.

더러 : 버러 (나더러—나버러).

더럽다 : 칩갈맞다, 칩살맞다.

덜 : 들 (덜갓다—들갓다).

덜여물다 : 들여물다.

덩지 : 덩치.

데리고가다 : 택구가다.

도거리하다 : 뚫내기하다.

도깨비바늘 : 개바늘.

도끼 : 도치

도둑 : 도둑.

도랑 : 또랑, 풀창, 풀강.

도련님 : 데린님.

도로 : 도루.

도록 : 더락 (가도록까지—가더랑까장).

도롱뇽 : 도마배암.

도르래 : 도롱태.

도리어 : 되려, 뉘세, 뉘세.

독 : 도가지 (술독—술도가지).

돈 : 둔.

돌 : 독.

돌다리 : 독다리.

돌맹이 : 돌팍, 독팍.

15) 느루먹다 : 양식의 소비를 조절하여 예정보다 더 오래 먹다.

16) 다다귀다다귀 : '다닥다닥'의 본말. 예 : 은행 열매가 다다귀다다귀 붙어 있는 게 가을에는 제법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겠다.

동네 : 동네.
 동부 : 돛부.
 동생 : 동상.
 동티나다 : 동투나다.
 돼지 : 도야지, 두에지.
 되다 : 도지다 (되게-도지게).
 되도록 : 다다 (되도록 많이-다다 많이)
 되독하다 : 띄독하다, 띄똥하다.
 두꺼비 : 두께비.
 두드리다 : 뚜디리다.
 두락(斗落)¹⁷⁾ : 배미¹⁸⁾ (논 한 배미).
 두레박 : 타래박.
 두루마기 : 두루매기.
 독 : 뚝, 뚝쟁이.
 둥우리 : 둥구리 (닭둥우리-닭기둥구리).
 뒤꼍 : 두꼍
 뒤적거리다 : 디적그리다.
 뒤통수 : 뒷꼭지.
 뒤트레방석 : 두투레방석.
 뒷간 : 디간, 둑간.
 드리다 : 디리다.
 들내¹⁹⁾ : 들지름냄새.
 들어서자마자 : 들어단짝애.
 들여다보다 : 디려다보다.

17) 두락(斗落) :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 보통 마지기라고도 한다. 한 말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인데, 평지와 산지 또는 토지의 비옥도 등에 따라서 그 면적이 다르다. 보통 논은 경우에는 200평, 밭은 100평을 한 두락이라고 한다.

18) 배미 : 논배미.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구획된 논을 세는 단위.

19) 들내 : 들깨나 들기름에서 나는 냄새.

등 : 등감, 등어리, 등짝, 잔탱이.
 등성이 : 등생이, 잣배기.
 따닥개비²⁰⁾ : 딱따개비.
 따뜻하다 : 따땃하다.
 딱지 : 딱쟁이.
 탄진보다 : 해찰하다.
 딸기 : 딸구.
 땀띠 : 땀떼기.
 땅벌 : 오빠시.
 때리다 : 썰리다, 꺾다.
 때문에 : 때미, 때매.
 떠다밀다 : 떼미틀다.
 떼거리 : 떼제비.
 또아리 : 똥아리.
 꿇기밭 : 뚱애기밭.
 뚜껍 : 따개, 따깡, 두께.
 뚝배기 : 툯배기, 투가리.
 뜰²¹⁾ : 뜨란. 뜰팡²²⁾.
 마늘 : 마늘.
 마렵다 : 매렵다.
 마루 : 마리.
 마을 : 마실, 마슬 (마을가다-마실가다).
 마음 : 맴.
 마지막 : 마주막, 마즈막.
 막내 : 망내.

20) 따닥개비 : 방아개비의 수컷은 날 때에 앞뒤 날개를 비벼서 타타타 하는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 때문에 따닥개비라고 불리기도 한다.

21) 뜰 :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 화초나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푸성귀 따위를 심기도 한다.

22) 뜰팡 : ‘뜰’의 방언. ‘토방’의 방언.

막대 : 막대기.
 막동이 : 막동이.
 만날 : 맨날.
 만들다 : 맨들다, 맹글다.
 많다 : 썻다.
 말감고 : 말강구.
 말뚝망둥이 : 송장망둥이.
 말벌 : 왕텡이.
 망둥이 : 망텡이.
 망하다 : 폭삭하다.
 매일 : 맨날.
 매형 : 매양.
 맥없다 : 매가리 없다.
 맨바닥 : 날바닥.
 맷돌 : 매.
 머슴 : 머, 므.
 머위 : 명우.
 먹이다 : 맥이다.
 먼저 : 먼처, 먼점, 먼침.
 먼지 : 몐지.
 멍들다 : 먹지다.
 멍에 : 멍애.
 메공이 : 메깁이.
 메뚜기 : 메떼기.
 메밀 : 메물.
 메어꽃다 : 메때리다, 메세리다.
 멜빵 : 밀빵.
 멍쌀 : 멧쌀.
 머느리 : 메누리, 메느리.
 머느리고름(학질) : 메누리보금.
 며칠 : 메칠.

먹동구미 : 메꾸리.
 먼박주다 : 낮박살내다.
 멀구 : 머루 (버멀구-베머루).
 멀치 : 열치, 멜치, 메루치.
 명일(明日) : 멩일.
 명절 때 : 멩일 때.
 모과 : 모가, 모개.
 모두 : 말짱, 말끔.
 모래 : 모리.
 모르다 : 물르다.
 모양 : 모냥.
 모이 : 모시 (닭모이-닭모시).
 모자간(母子間) : 모재간.
 모통이 : 모텡이.
 목 : 모가지, 모감쟁이, 모가지.
 목욕 : 목간.
 못들은척하다 : 시척두않다.
 못하다 : 못허다.
 몽둥이 : 몽텡이.
 묘(墓) : 모이.
 묘역 : 모이마당.
 무릎 : 무루팍.
 무명 : 미영.
 무섭다 : 미섭다.
 무우 : 무수.
 묶다 : 텡이다, 쫂매다, 촘매다.
 문둥이 : 문텡이, 용천배기.
 물건 : 물건.
 미꾸라지 : 미꾸리.
 미나리깡 : 미나리짱.
 미역 : 떡 (미역국-떡국).

밀물 : 들물.

바구니 : 바구리.

바구니 : 바게미.

바늘 : 바늘.

바람개비 : 팔랑개비.

바보 : 버커리.

바지락 : 반지락.

바지춤 : 게춤, 게타리.

바치다 : 발키다.

박쥐 : 박지.

박태기나무 : 밥풀꽃나무.

박히다 : 백히다, 백이다.

반딧불 : 개똥불.

반짓고리 : 반짓그릇.

반찬 : 건건이.

발구 : 꼬승개.

발목 : 발목쟁이, 발모가지.

발자국 : 발자욱.

발짝소리 : 발자욱소리.

발채 : 바작, 바지게.

방개 : 깔때기.

방둥이 : 방탱이.

방아깨비 : 땅개비.

방앗간 : 매갈잇간.

방정꾼 : 방정쟁이.

배우지 못하다 : 배지못하다.

배짱 : 붓짱.

배추 : 배차.

배추속대 : 배차속고뱅이.

백설기 : 백무리, 흰무리.

백합 : 참조개.

밴탱이 : 빈탱이.

뱀 : 배암, 뱀.

뱅어 : 실치 (뱅어포-실치포).

버러 : 번저 (먹어버러-먹어번저).

버릇 : 버르쟁이, 버르장머리.

버짐 : 버듬.

벌(蜂) : 벌.

벌레 : 벌리지.

벌레(가)나다 : 땡나다 (콩,팥)

벌목 : 발매.

범벅 : 푸레미 (호박범벅-호박푸레미).

법(法) : 뱀.

베개 : 벼개.

베다 : 비다 (벼배다-베비다).

베짜다 : 미영자다.

벼 : 베.

벼락 : 배락.

벼루 : 베루, 베룻독.

벼룩 : 베룩.

벼르다 : 베리다 (낮, 호미).

벼슬 : 베실.

벽 : 벽때기.

별꼴 : 발꼴 (별꼴다보다-발꼴다보다).

별일 : 발릴 (별일다있다-발릴다있다).

법씨 : 뱃나락, 썩나락.

벧 : 베슬 (닭벧-닭베슬).

병(病) : 비웅.

병풍 : 평풍.

보구치 : 보골치.

보곳 : 버급쟁이 (술보곳-소낭구버급쟁이).

- 보시기 : 보새기.
 복사빼 : 복숭아빼, 복사시.
 복어 : 복쟁이.
 본토박이 : 본토배기.
 불 : 불탱이, 불때기, 불통가지.
 불락 : 우럭.
 봉변 : 뿡변.
 봉투 : 봉토, 봉토지.
 부두 : 뱃말.
 부리 : 역부리.
 부러뜨리다 : 분질다, 분지르다.
 부러워하다 : 불거하다.
 부세 : 부서
 부스럼 : 꼬무락지.
 부아나다 : 부애나다, 뵈나다.
 부어라 : 부서라.
 부엌 : 부석, 뵙, 뵙짜.
 부자간(父子間) : 부재간.
 부젓가락 : 부젓갈, 불젓가락.
 부지깽이 : 부젓땡이.
 부쩍 : 버썩 (요즈음 버썩 더한다).
 부추 : 줄.
 부터 : 버터, 버텀 (우리부터-우덜버텀).
 분가하다 : 체금내다.
 불켜다 : 불쓰다.
 비렁뱅이 : 비렁이.
 비료 : 비루.
 비름 : 비듬 (비름나물-비듬나물).
 비설겅이 : 비서러지.
 비숫이 : 비스름이.
 비숫하다 : 비젓허다.
- 비치다 : 빗뜩하다.
 비탈 : 비알.
 빗자루 : 빗자락, 빗짜락.
 빨리 : 싸게 (빨리빨리-싸게싸게).
 뽑다 : 뺨다.
 뿌리 : 뿌렁이, 뿌레기.
 빨기 : 빼비 (빨기뽑다-빼비뽑다).
 뺨다 : 빼다 (씨앗을 뺨다-씨앗을 빼다).
 사람이 : 사람다, 사람다가.
 사마귀 : 사막.
 사철나무 : 들충나무.
 사춘 : 사춘.
 사팔뜨기 : 흘퇴기.
 삭쟁이 : 삭쟁이.
 산등성이 : 산등쟁이.
 산마루 : 산말랭이.
 살랭이 : 살가지.
 삼발이 : 이리쇠.
 상여 : 생여.
 상추 : 부루 (상추쌈-부루쌈).
 새(鳥) : 사이 (새쫓다-사이보다).
 새끼 : 산내끼, 산나끈.
 새우젓독 : 새우젓조쟁이.
 샴 : 새암, 샴.
 생감 : 땡감, 날감.
 서다 : 스다.
 서랍 : 뺨단이, 빼다지.
 석 : 슣 (석달-스달).
 석유 : 썩유.
 선보다 : 슨보다.
 선생님 : 선상님.

신달 : 슨달.

설 : 슨 (설날-스날).

설탕 : 설탕가루, 사탕가루.

성글다 : 영글다 (모시가 영글다).

성냥 : 성냥.

성질 : 승질, 소가지.

세간내다 : 시간내다.

세간살이 : 시간살이.

세다 : 시다.

세배 : 시배 (세벳돈-시벳돈).

세상 : 시상.

세수 : 시수.

세수대야 : 시숫대.

셈 : 심 (셈이 흐리다-심이 흐리다).

셈판 : 심판.

셈평이 펴이다 : 심이 피다.

셋 : 싯 (셋씩이나-싯씩이나).

소경 : 소이경.

소금 : 소굼.

소꿉놀이 : 소꿉놀이.

소나기 : 쏘내기.

소리지르다 : 소래기지르다.

소입마개 : 소망.

소제(掃除) : 씨서리.

소주 : 세주.

속보이다 : 풀배다.

손가락 : 손꾸락.

손목 : 흘목.

솔개 : 소리개.

솔방울 : 품방울.

송아지 : 송아치.

송충이 : 송챙이.

송편 : 쉩편.

솔뚜껑 : 소당, 소댕뚜껑.

쇠고기 : 소이고기, 소이코기.

쇠스랑 : 소시랑.

쇠전(牛市場) : 소시전, 소이전, 소이전마당.

수령 : 수랑.

수리취 : 수루치.

수수깡 : 수숫대, 수숫덩이.

수염 : 시염.

수저 : 숙갈.

수제비 : 뚝덕수제비.

숙맥 : 쑹맥.

숫기 : 숙기.

송냥 : 송님, 송냉.

쉬 : 시 (쉬웁게-시웁게).

췌 : 시운, 시훈.

시래기 : 시라구, 시락지.

시어미 : 시미.

시원시원하다 : 깔깔하다.

시큼하다 : 시크름하다.

시향(時享) : 지양 (시향잡숫다-지양잡숫다).

식혜 : 식혜.

실오라기 : 실내끼.

실컷 : 실컨.

실하지 않다 : 쭉다.

심하게 하다 : 직사하게 하다.

싸다 : 하리다, 야리다 (쌀값이 야리다).

싸라기 : 싸래기.

싸매다 : 꺾매다.
 싸움질 : 싸질, 싸박질.
 싸수 : 싸가지, 싸바가지, 싸동배기.
 쌍(雙) : 쌍아리.
 쌍둥이 : 쌍둥이.
 쌍말벌 : 바다리, 바더리.
 쌍다 : 쟁이다.
 쏘다니다 : 까질러댕기다.
 썸바귀 : 썸바구
 씨아 : 씨아시.
 씹 : 씹 (하나씹-하나씹).
 씻다 : 부시다(그릇을 부시다).
 아궁이 : 부석. 부엌쟁이. 부락쟁이.
 아까 : 아께.
 아깝다 : 알쩍하다.
 아무렇게나 : 암치케나
 안경 : 앵경.
 안쓰럽다 : 안슬프다.
 안팎 : 안암팎. 안안팎.
 알사탕 : 눈깔사탕.
 알토란같다 : 알토롱같다.
 양감질²³⁾ : 깨금질.
 앞자락 : 앞지락.
 애벌 : 아시(애벌빨래—아시빨래).
 액막이 : 액매기. 예방. 방법.
 약올리다 : 꼴리다. 종애꼴리다.
 얇전하다 : 얇잔하다.
 어기다 : 어그리다.

어느 : 워느.
 어둑어둑하다 : 어슬어슬하다.
 어떡하면 : 워쩌면.
 어떤 : 워편.
 어떻게 : 워칙게. 워치기.
 어레미 : 얼게미. 얼맹이.
 어렵쇼 : 얼라. 얼레. 업세.
 어른 : 으른.
 어리석다 : 어리뜽하다.
 어린아이 : 어린내. 언내.
 어렵없다 : 호이계없다.
 어마나 : 어라. 어메. 워메.
 어머니 : 업니.
 어서 : 어여. 얼름. 얼릉. 싸게.
 어지간 : 앵간.
 어째 : 워째.어쩐대 : 워쩐다.
 역새 : 왓새.
 언덕 : 언덕배기. 번덕지.
 언제 : 원제.
 언청이 : 언챙이.
 언다 : 은다.
 얼레빗 : 어레빗.
 얼마 : 월마. 월매.
 없다 : 읍다. 읍다.
 엉덩이 : 엉텡이.
 엇그제 : 어끄러께.
 엇드리다 : 엇디리다.
 엇어지다 : 어푸러지다.
 여기로 : 이리루. 일루.
 여덟 : 여들.
 여물다 : 영글다.

23) 양감질 : 한 발은 들고 한 발로만 뛰는 것.
 침탁(蹠蹠).

여우 : 여수.
 여치 : 유치.
 여태껏 : 연태껏. 여적. 여적지.
 연(鵝) : 이은.
 연기 : 영기.
 열나다 : 한전하다.
 열두무날²⁴⁾ : 열두물. 열두매.
 열쇠 : 쇠대.
 염소 : 염생이.
 영 : 이영.
 영영 : 이응영.
 옆 : 옆대.
 예쁘다 : 이뿌다.
 예전 : 이전.
 오이 : 물외.
 오죽잖다 : 용쌀나다.
 오징어 : 오중어.
 옥수수 : 옥수쟁이.
 올가미 : 올개미. 올무.
 옹기다 : 왕기다.
 왕겨 : 왕저. 맏저.
 왜간장 : 진간장.
 외삼촌 : 오삼촌.
 외양간 : 오양간.
 외할머니 : 오이할머니. 오할머니.
 왼손 : 오여손. 오요손.
 용마름 : 용구새.
 우거짓국 : 진늬국.
 우렁이 : 우렁.

우리들 : 우덜.
 우물 : 새암.
 우산 : 유산.
 우수수 쏟아지다 : 우술우술 쏟아지다.
 옷방 : 읍방.
 웬만큼 : 우연만큼. 우연만치. 우연만침.
 웬만하면 : 우연만하면.
 윗물 : 옷물.
 윤달 : 군달.
 윗놀이 : 윤놀이.
 으깨다 : 이깨다.
 은단 : 인단.
 음식 : 음석.
 의사(醫師) : 으사.
 의원 : 으원.
 이남박 : 함지. 나무함지.
 이대로 : 이냥.
 이렇게 : 이렇기. 이리큼. 이리.
 이맘때 : 이만때.
 이미 : 밧써.
 이영 : 나래.
 이웃 : 이우지.
 이웃간 : 이우지간.
 이웃사람 이우짓사람.
 이음매 : 이슴매. 이슴새.
 이제 : 인저.
 익모초 : 육무초. 육모초.
 인절미 : 임절미.
 일껏 : 일건.
 일부러 : 역부러.
 일으켜세우다 : 일서세우다.

24) 열두무날 : 조수 간만의 차로 볼 때에 음력 5
 일과 6일, 20일과 21일을 이르는 말.

앞사귀 : 앞사구. 앞새기.

자국 : 자욱.

자귀 : 자구.

자귀나다 : 짜구나다.

자꾸 : 대구. 대이구.

자배기²⁵⁾ : 널벽지. 너벽지.

자세히 : 째째이.

자전거 : 자즌거. 자징겨.

자투리 : 짜투리. 자치레기.

작다 : 적다. 죽다. 쪽다.

잔돈 : 잔전.

잔칫집 : 큰일집.

잘코사니 : 잘코뱅이.

잠 : 잤.

잠깐 : 장판.

장(場) : 쟁.

장가가다 : 장개들다.

장난 : 장냥. 장냥.

장님 : 소이경. 눈멀억대.

장독대 : 장팡.

장독뚜껑 : 장뚜껑.

장리(長利) : 장례(장리번—장렛둔).

장아찌 : 째아찌.

장작 : 장적.

장터 : 장태.

재수없이 : 마수없이.

재채기 : 재치기.

잣물 : 잣물.

잣박²⁶⁾ : 재삼태미.

저고리 : 저구리.

저금 : 즈금.

저기로 : 저기루. 절루.

저렇게 : 저냥 저리.

저물도록 : 짐드락.

저희 : 저. 즈이.

적이나하면²⁷⁾ : 저그나면.

전(煎) : 존(전부치다—즌부치다).

전구(電球) : 존기알. 존기다마.

전봇대 : 존기선대.

전부 : 전수.

절구통 : 도구통.

절굿대 : 도구대.

점심 : 즈신. 즈심. 겹심. 겹신.

점낫 : 육철낫.

젓국 : 적국. 째국.

정나미 : 정내미.

제 : 지(제가—지가).

제고장 : 고적지(보령은 벼루의 고적지).

제기탈 : 작것.

제끼다 : 짓히다.

제발덕분에 : 지발덕분에.

제비 : 지비(제비집—지비집).

25) 자배기 : 아가리가 등글고 넓적하게 벌어진 옹기그릇. 흔히 독 뚜껑으로 쓰는 소래기보다 운두가 약간 높으며 바닥이 넓다. 동이만한 부피에 높이가 낮고 넓적하게 만든 옹기그릇처럼 생겼으며, 바깥 면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다.

26) 잣박 : 농가에서 거름으로 쓸 재를 담은 그릇. 회포(灰匏).

27) 적이나하면 : [부사] 형편이 다소나마 된다면. 예 : 사정이 적이나하면 도와주겠다.

제비꽃 : 반지꽃.
 제사 : 지사.
 제일이다 : 구만이다. 그만이다.
 조 : 스속(조바심—스속바심).
 조가비 : 조잡지.
 조금 : 조끔. 쪼끔. 쪼매.
 조리 : 조랭이.
 조마조마하다 : 쫄뫂쫄뫂하다.
 조바위 : 조바우.
 조팝나무 : 국수나무.
 족두리 : 쪽도리.
 족집개 : 쪽직개.
 존조리 : 준저리(존조리 타이르다—준저리 타이르다).
 종일 : 쟁일. 쟁일.
 종지 : 종재기.
 죄(罪) : 조이.
 죄암질 : 지암질(죄암죄암—지암지암).
 주동망²⁸⁾ : 소망.
 주머니 : 주면지.
 주뻗주뻗하다 : 주뻗주뻗하다.
 죽이다 : 직이다. 꺾이다.
 줄곧 : 줄창.
 줄넘기 : 줄렁기.
 중동무이하다 : 중동매다. 품매다.
 중매들다 : 중신하다.
 쥐 : 지.
 쥐구멍 : 지양구녕. 쥐구녕.

쥐독(정수리) : 지구녕.
 쥐불놀이 : 지부레. 지부러.
 짚부채 : 접부채.
 즉사 : 직사.
 즉효 : 직코.
 즐기다 : 즐겨하다.
 증편 : 기주. 기주떡.
 지끔거리다 : 지끌거리다.
 지난달 : 저번달.
 지난번 : 저그번.
 지령이 : 지렁이.
 지르통하다 : 지루통하다.
 지린내 : 지른내.
 지붕 : 지병.
 지우산 : 지유산.
 지지난달 : 저지난달. 저그번달.
 지지난번 : 저지난번.
 진딧물 : 뜨물.
 진정(眞正) : 진쟁²⁹⁾.
 진흙탕 : 진퍼리.
 질경이 : 질갱이.
 짐작하다 : 갈량하다.
 짓고뻗 : 직구뻗.
 짓이기다 : 농집내다. 녹쌀내다.
 짚 : 지푸락. 지푸래기.
 짚가리 : 짚누리.
 짚뭇 : 짚토매.
 짚신 : 짚세기.
 짹 : 쌍아리.

28) 주동망 [--網] : 소가 풀을 뜯어 먹지 못하도록 주둥이에 씌우는 망태기. 새끼줄로 촘촘하게 엮어 굴레에 동여맨다.

29) 진쟁 : 진품. 진짜인 물건. 많은. 예 : 이 시계 진쟁이야. 야구장에 사람 진쟁 많다.

짹짹 : 짹짹.
 쪼들리다 : 쪼다. 쪼리다. 쪼달리다.
 쪽박 : 쪽박.
 쪼딱망하다 : 쪼까닥망하다.
 쭈꾸미 : 쭈께미.
 쪼그렁이불다 : 쪼데기불다. 쪼그렁이불다.
 차(車)가 : 차라. 차라가.
 차갑다 : 차겁다.
 차곡차곡 : 채국채국. 채곡채곡.
 차시루떡 : 찰무리.
 차양 : 채양.
 차일 : 채알. 채일.
 차차 알게 되다 : 스사루 알게 되다.
 찬광 : 창광.
 찬마루 : 부엌마루.
 찬물 : 참물.
 찰랑찰랑하다 : 치렁치렁하다.
 참깨 : 물기. 묵기.
 참견 : 챙견.
 참깨 : 창패.
 참빗 : 챔빗.
 참외 : 차무. 차미. 오이.
 찾다 : 찻다.
 채뜨리다³⁰⁾ : 채틀다.
 채치다 : 까시다(무를 까시다).
 책임자 : 책음자.
 처네포대기 : 츠네포대기.
 처녀 : 츠녀.

처럼 : 마냥(꿀마냥 달다).
 천덕스럽다 : 근천스럽다.
 천생 : 천상(천상연분).
 천하없어도 : 천에없어도.
 철버덕 : 철푸덕. 철푸데기.
 첫물 : 만물.
 청국장 : 쪼엄장. 통통장.
 촌뜨기 : 촌떼기.
 추렴 : 추념.
 추수하다 : 바심하다.
 추위타다 : 추엄타다.
 축나다 : 축가다.
 춘궁기 : 마른봄.
 취미 : 추미.
 측량 : 칙량.
 측백나무 : 칙백나무.
 칼국수 : 수체비.
 감감하다 : 강강하다.
 커다랗다 : 커드렇다.
 켜 : 케(먼지가 케케로 쌓이다).
 켈레 : 커리(신발 한 커리).
 코흘리개 : 콧지렁이.
 콘크리트 : 공구리(콘크리트다리—공굴다리).
 콧등 : 콧싸덩이.
 콧수염 : 콧시염.
 콩땀³¹⁾ : 콩대미. 콩다마.
 큼직하다 : 크막하다.

30) 채뜨리다 : 앞으로 와락 잡아당기다. 재빠르게 채어 빼앗다.

31) 콩땀 : 불린 콩을 갈아서 들기름 따위에 섞어 장판에 바르는 일. 장판이 오래가고 윤과 빛이 난다.

키 : 치(키질—치질).
 타기다 : 타겨다. 탁하다. 영락없다.
 탁보(濁浦)³²⁾ : 탁각. 술푸대.
 탐스럽다 : 탐지다.
 터뜨리다 : 터지다.
 터무니 : 터문생이.
 터울 : 터구리(두 살 터구리).
 터주항아리³³⁾ : 터줏단지.
 턱 : 턱배기. 턱살. 턱주가리.
 털보 : 털부리.
 털실 : 계실.
 토끼 : 퇴끼.
 토리³⁴⁾ : 토생이(실토생이).
 토방 : 뜰팡.
 토역꾼 : 토역쟁이.
 통배추 : 호배추.
 통째 : 통채.
 통틀어 : 통털어.
 투성이 : 투백이.
 투진꾼 : 튀진꾼.
 통겨지다 : 통그러지다.
 통바리맞다 : 머텡이맞다.
 튀각 : 티각.
 튀기다 : 튀다.
 튀밥 : 깡밥.
 트랜지스터 : 도란지스따.

32) 탁보(濁浦) : 성격이 흐리터분한 사람. 분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막걸리를 몹시 좋아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탁객·탁주꾼·탁춘추.

33) 터주항아리 : 터주에게 바치는 곡식을 담은 항아리. 터주는 터주님·터줏대감·지신(地神)이라고도 하는 집터의 신(神)이다. 터줏대감은 특히 집안의 재보(財寶)를 관장한다. 성주·계석·삼신·문신 등의 가신(家神)과 동렬에 놓이는 신이며, 오방지신(五方之神) 가운데 중앙신(中央神)으로서 다른 4방신을 다스린다.

34) 토리 : 실을 둥글게 감은 몽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실몽치를 세는 단위.

트림 : 게트름.
 특별히 : 틱벨이.
 틀국수 : 기계국수.
 틈새 : 틈생이. 트목. 틈바구.
 티끌 : 탐세기.
 티검불 : 티검불.
 파리 : 피리.
 파리통³⁵⁾ : 파리등.
 파장머리 : 파장판.
 팍팍하다 : 파근파근하다.
 판가름 : 판가리.
 팔꿈치 : 팔꿈생이.
 팔죽지 : 팔매기.
 팔짱뚱다 : 팔짱하다.
 팻중³⁶⁾ : 파꽃.
 패다(‘파이다’의 준말) : 팽기다.
 퍼뜨리다 : 퍼치다.
 폐 : 피.
 폐끼치다 : 피끼치다.
 폐농(廢農) : 피룽.
 폐렴 : 피렴.
 폐병 : 뽕병.
 포개다 : 피개다.
 포대기 : 피대기.
 포도 : 포두.
 포럼(布簾) : 주렴.

35) 파리통(一筒) : 파리를 잡는 데 쓰는 유리로 만든 통. 목이 짧은 병 모양이며, 밑을 안으로 깊숙하게 올려 위쪽으로 파리가 들어가도록 구멍을 내고 구멍의 속 둘레에 물을 부어 들어온 파리가 빠져 죽도록 크고 둥글게 만든다.

36) 팻중 : 다 자란 파의 꽃줄기.

푸성귀 : 푸성거리.
 펀더분하다 : 후더분하다.
 펀사실 : 불란사실(수놓는 실).
 펀수 : 분숫덩이.
 플렁거리다 : 풀러덩거리다.
 풀무 : 불무.
 풀숨³⁷⁾ : 풀시염.
 풋장 : 푸장나무.
 풍각쟁이 : 풍악쟁이.
 풍물 : 풍장.
 풍비박산(風飛雹散) : 풍지박산.
 하가에 : 한가에(어느 한가에).
 하겠더구만 : 하겠더구먼.
 하고 : 허구.
 하고많은 : 허구많은.
 하기는 : 허기사.
 하느님 : 하늘님.
 하늘 : 하늘.
 하더구만 : 하더구먼.
 하등(下等) : 하찌.
 하루살이 : 날파리. 날타리.
 하룻강아지 : 하룻강아지.
 하야말썹하다 : 흐여말끔하다.
 하자니까 : 하자닌께. 하자께. 하자먼.
 하지를 마라 : 허들 마라.
 하필 : 해필.
 학교 : 핵교.

학생 : 학상.
 한 사람 앞에 : 한 앞에.
 한겹 : 흘겹.
 한길 : 행길.
 한무날³⁸⁾ : 한물때.
 한창 : 한참.
 한창때 : 한참때.
 할거야 : 할겨.
 할까봐 : 할깨미. 할깨비.
 함께 : 하냥.
 합석 : 양철. 상철.
 합씬 : 흠빱.
 항렬 : 행렬.
 해감내 : 흑염내.
 해산구완 : 해산관.
 해삼 : 미.
 해수병(咳嗽病) : 해소병.
 해지다(日沒) : 해떨어지다.
 해코지 : 해꾸지.
 험쌀 : 헛쌀.
 햇별나다 : 핵구나다.
 했는가 : 했간. 했남. 했담. 했데. 했간디.
 행랑 : 행낭.
 허겹지겹 : 검비검비.
 허름하다 : 희줄하다.
 허름숭이 : 허름쟁이.
 허리띠 : 허릿바.
 허발하다 : 허발대신하다.
 허방다리 : 허당.
 허섭쓰레기 : 허집쓰레기.

37) 풀숨 : 실을 켜지 못하게 된 허드렛 고치로
 늘어 만든 숨. 명주를 잘 때 실이 끊어지면 매
 듭을 짓지 않고, 이 숨을 조금 뜯어서 싹 비빈
 다음 고정시키면 풀처럼 붙는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하얗고 광택이 있으며 목화솜보다도
 가벼우면서도 따뜻하다.

38) 한무날 : 무수기(썰물과 밀물의 차)를 볼 때
 열흘과 스무닷새를 이르는 말.

허술하다 : 허실하다.
 허희탄식 : 허이탄식.
 헌옷 : 혼옷.
 헌이영 : 썩은새.
 헛청 : 헛간.
 헝겂 : 흥겂. 흥겂때기.
 헤프다 : 호이푸다. 호푸다.
 행구다 : 행기다. 가지다. 부시다.
 혁대 : 각띠.
 현몽 : 슨몽.
 헛바닥 : 섭바닥.
 형편없다 : 생편없다.
 호드기 : 호때기.
 호락질 : 호라시.
 호랑이 : 호랭이.
 호박벌 : 방탕이.
 호주머니 : 호랑. 봉창.
 홀로되다 : 혼자되다.
 훗훗하다³⁹⁾ : 곱지다. 알지다.
 흥어 : 흥애.
 화독내 : 화덕내. 불내. 탄내.
 화로 : 화루.
 환갑 : 한갑.
 헛대 : 핫대.
 회(會) : 호이(회계감사—호이계감사).
 회오리밤 : 외톨밤.
 회초리 : 호차리.
 효도 : 소두.
 효자 : 소자.
 후레자식 : 후라들눔.

39) 훗훗하다 : 딸린 사람이 적어서 매우 홀가분하다.

훈훈하다 : 후눈하다.
 훗씬 : 헛씬.
 휘둥그렇다 : 후둥구렇다.
 휘지다⁴⁰⁾ : 팽기다⁴¹⁾.
 휘지르다⁴²⁾ : 후질르다.
 휘파람 : 회파람.
 흥 : 승.
 흥내 : 승내.
 흥년 : 승년.
 흥물떨다 : 승물떨다.
 흥허물 : 승어물.
 흐르다 : 흘르다.
 흐슬부슬 : 흐슬흐슬.
 흑임자(黑荳子) : 흑염자. 시금자.
 흔해빠지다 : 흔해터지다.
 흙투성이 : 흙투배기.
 흥똥항똥⁴³⁾ : 흥똥흥똥. 희똥⁴⁴⁾ :
 희똥다.
 희번덕거리다 : 허번덕그리다.
 희부엌다 : 허부엌다.
 힘 : 심.
 힘껏 : 심껏.

40) 휘지다 : 무엇에 시달려 기운이 빠지고 쇠하여지다.

41) 팽기다 : 힘이 다하다. * 사투리는 아님.

42) 휘지르다 : 어떤 일을 하느라고 옷을 몹시 구기거나 더럽히다.

43) 흥똥항똥 : 어떤 일에 정신을 온전히 쓰지 아니하고 꾀를 부리거나 마음이 들떠 행동하는 모양.

44) 희똥다 : 실속은 없어도 마음이 넓고 손이 크다. 말이나 행동이 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다. ≡희다.

5. 보령 지역의 복합적인 특수 방언

방언 가운데에는 해묵은 말임에도 그 표준말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있다. 지닌 뜻과 쓰임새가 여러 갈래이기 때문이다. 우리 보령 지역 특유의 그러한 방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심 피다 : 가슴이 철렁하게 하다. 속 썩이다. 애태우다. 말썽부리다. 일 저지르다. 말을 안 듣다.
- 개갈 안 나다 : 뜻·말·일·짓 따위가 종잡을 수 없다. 매듭이 흐리다. 마무리가 없다. 앞뒤가 맞지 않다. 미답지 않다. 상식 밖이다.
- 거울러지다 : 무엇이 좀 기울어지다. 사람이 죽다.
- 걸터듬다 : 무엇을 찻느라고 이것저것 마구 더듬다. 음식을 게걸들린 듯이 먹거나 남의 눈치를 보아가며 자꾸 지범거리다. 뇌물을 주는 대로 받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남겨먹다.
- 걸떡거리다 : 술·음식 뇌물 등을 줄 만큼 주어도 계속 더 요구하다. 주면 줄수록 남남하다. 탐욕이 한없다.
- 고런 한 푼 : 피친 한 푼. 말하기도 부끄러운 푼돈. 있으나 마나한 싹짓돈. 받기가 창피한 구두쇠의 잔푼돈.
- 낚음낚음하다 : 옷이 눈만 흘겨도 미어지게 희치희치하다. 기울 수가 없이 낚다. 걸레는 해도 행주는 못하게 삭아 빠지다.
- ~르라 : ‘하게 하는 사이’에 쓰는 의문형 종결어미. (가려는가-갈라. 오겠는가-올라. 하겠나-할라. 다녀올 텐가-다녀올라?).
- 말 시피다 : 아이가 말을 안 듣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하다. 큰 소리를 내게 하다.
- 몇 조금 못가다 : 얼마 못가다. 며칠 못가다. 몇 달 또는 몇 년 못가다. 오래 못가다.
- 받다 : 술을 사다. 술을 사주다.
- 백구야 하다 : 배불러하다. 내 몰라라 하다. 혼자 흐뭇해하다.
- 버렁 빠지다 : 거덜나다. 본전도 못 건지다. 희생당하다. 실속 없이 애쓰다.
- 보고리 채다 : 도와주어도 시원찮을 터에 도리어 비아냥거리면서 비위를 거스르다. 될 것도 안 되게 자꾸 시비하다. 은연중에 계속 훼방을 하다.
- ~ㄴ사리 : ~ㄴ커녕, ~ㄴ고사하고. (돈을 벌긴사리 빚만 졌다).
- ~르섯이 : ~ 하지 못할망정 도리어. (우는 애를 달렐섯이 때리다니...).

- 산골 지양탱이 : 두메, 촌사람, 건식이 보잘 것 없는 사람, 맵시가 없거나 매무새가 거친 사람.
- 새뿔 빠진 소리 : 새삼스럽게 하는 말. 하나마나한 말. 뒤늦게 되풀이하는 말. 엉뚱한 말.
- 썩음썩음하다 : 집·기계·도구 차량 등이 몹시 낡다. 고장 나다. 버리거나 개비할 때가 되다.
- 조용없다 : 쓸데없다. 옳지 않다. 싫다. 아니다. 실없다. 끝났다.
- ~ 쏘구 : 이러든 저러든. (먹고 자시고-먹구쏘구, 가고말고간에-가고쏘구간에).
- ~ 쏘수 : 동안, 가랑, 남짓 (닷새 동안-한장 쏘수, 달포 가랑-달포 쏘수, 쌀 한 말 남짓-쌀 한 말 쏘수).
- 시부정찮다 : 신청수같다. 심드렁하다. 내켜하지 않다. 대답이 시원치 않다. 싹수가 틀린 것 같다.
- 시적지근하다 : 온기가 따뜻미지근하다. 음식이 시큼하다. 반응이 약하다. 마지못한 듯하다.
- 심판없다 : 뜻·말·일·짓 등이 비능률적이다. 장래성이 없다. 태도가 분명치 않다. 금전 거래에 셈이 흐리다. 눈을 팔거나 판전보다 약속을 어기다.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다. 분수에 넘치다.
- 아널말루 : 하면 아니 될 말로. 할 수 없이 하는 말로. 어떤 불이익도 각오하고 하는 말로.
- 울리감사하다 : 사람이 죽다. 동물이나 식물이 죽다. 화로가 식다. 기름이 없어서 등잔불이 꺼지다.
- 입술발매하다 : 여러 사람 앞에서 남을 헐뜯다. 아무에게나 남의 말을 옮기다. 동네 방네 소문을 내다. 상품을 팔고자 수다를 떠다.
- 주걱쇠 파다 : 인색한 사람이 그답게 인색한 말을 하다. 잘사는 사람이 더욱 움켜 쥐려고 떠들다.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 앞에서 궁한 듯이 엄살을 떨다.
- 탁 털다 : 재물을 있는 대로 다 내놓거나 다 쓰다. 논밭을 모두 팔아먹다. 사업이 망하다. 노름판에서 다 잃거나 살림을 거덜 내다. 빚잔치를 하다.
- 틀리다 : 친하던 사이에 의가 나다. 닳지 않다. 답지 않다. 같지 않다. 전만 못하다. 전보다 낫다. 앓거나 고민을 하여 안색이 좋지 않다. 몸이 축나다. 계산이 맞지 않다.
- 틀물레질하다 : 괜히 심술이 나다. 부러 엇나가다. 속마음과 달리 판짓 하다.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다.

- 폭삭하다 : 살림살이가 거덜나다. 사업이 망하다. 잘못하여 그릇을 깨뜨리다. 잘못하여 그릇에 가득 담긴 것을 모두 쏟아뜨리거나 뒤집어 놓다. 높이 쌓아올린 것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다. 빗더미에 올라앉다.
- 풍월하다 : 음치가 노래하다. 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늘어놓다. 주제넘게 떠들다. 유식한 체하다. 헛소리하다.
- 해뜯을 대다 :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이듬해 해토머리까지 양식을 하다. 김장을 이듬해 봄채소가 날 때까지 먹다.
- 허부렁하다 : 서부렁하다. 엉성하다. 부피만 크다. 오죽잖다. 크기에 비하여 무게가 가볍다.
- 험험하다 : 끼니를 거르거나 채식만 하여 속이 헛헛하다. 일이 그릇되어 허망하다. 어이가 없다. 기대가 무너져서 말이 안 나온다. 생각할수록 후회스럽다.
- 호습다 : 말 · 수레 · 자전거 · 달구지 등을 타고서 느끼는 오금이 짜릿한 맛과 흔들리는 재미.
- 호야호야하다 : 사람이 물러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다. 덮어놓고 좋아하다. 아무렇게나 해도 이의가 없다.

- 본고는 보령 태생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李炫馥 님의 원고(1994년 발행 『大川市誌』 所載)를 바탕으로 약간의 정리를 추가한 것임을 밝힙니다. -